

세계석유회의(WPC) 한국위원회 창립

박 세 현

〈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정보처 3급〉

1. 머리말

세계석유회의(World Petroleum Congressess)에 가입을 위한 한국위원회가 '96년 3월 26일 한국무역전시관(KOEX)에서 정부 및 국내석유산업 관련 업계, 협회, 연구소, 학계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도 세계석유회의에 가입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였음은 물론, 향후 국내석유업계의 국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위원회는 금년 8~9월에 세계석유회의 가입 의향서를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석유회의 본부에 정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세계석유회의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석유회의 집행이사회에 가입심의를 거쳐 11월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최종 가입승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위원회는 금년도 중 세계석유회의에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정식회원으로서 제15차 북경총회에 참석을 목표로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석유회의에 가입시 실질적 혜택은

무엇보다도 세계석유회의 본부와 각 회원국 및 회원사 등과의 직접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1933년 창립되고 석유산업 상·하류를 통합한 범세계적인 국제석유기구인 세계석유회의에의 가입을 이제야 추진하는 것은 세계 제5위의 석유수입국, 제8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성장한 국내 석유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세계석유회의에 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동 기구에 가입시 혜택, 한국위원회 설립 추진경위 및 운영 형태, 맺는말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석유회의 개요

세계석유회의는 세계석유산업의 성장에 따른 석유정보의 국제적 교류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한 석유업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상설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33년 창설된 국제석유기구이다. 영국 런던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① 석유과학 및 관련기술의 개발 과학기술의 응용 및 기술이전의 촉진 ② 석유과학 및 기술과 석유업계의 경영, 경제적 제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장의 제공, ③ 석유업계 경영자, 과학자, 기술자, 정부관리 등 석유산업 관계자들을 연결하여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교류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OPEC 등의 국제석유기구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 성격과 기능을 볼때 IEA 및 OPEC에 못지 않게 국제석유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OECD회원국만 가입이 허용되는 소비국 중심의 정치적 기구이며, OPEC은 주요 산유국 중심의 정치적 기구임에 비해 산유국·소비국의 정부, 학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비영리·비정치적 단체임을 고려할 때 세계석유회의는 비산유국으로서 세계 8위의 거대 석유소비국으로 성장한 우리 나라의 석유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1〉 세계석유회의(WPC) 회원국 현황

알제리, 독일, 오만, 아르헨티나, 헝가리, 파키스탄, 호주, 인도, 페루,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브라질, 이란, 루마니아, 캐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크로아티아, 일본, 슬로베니아, 쿠바, 쿠웨이트, 스페인, 체코, 몰타, 스웨덴, 덴마크, 멕시코, 영국, 이집트, 네덜란드, 미국, 핀란드,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프랑스,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현재 회원국은 앞의 표에서와 같이 산유국 및 소비국들을 망라하여 42개국이며 그의 IEA, OPEC 등의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특정분야의 전문가단체 등과도 상호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석유회의의 기구로는 매 3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총회(Congress)와 상임이사회(Permanent Council),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과학위원회(Scientific Programme Committee),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총회준비위원회(Congress Arrangements Committee)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총회시에는 석유산업 상·하류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각국의 석유회사, 정부관리, 학계, 에너지 자문기관, 은행 및 관련단체, 용역 및 장비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석유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를 실시하게 된다. 1994년 5월에 노르웨이 스타방거에서 개최된 제14차 총회에서는 세계 78개국으로 부터 2,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회의와 별도로 22개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68개국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별, 회사별 현황 소개와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간 총회 개최현황 및 제14차 총회시 의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과거 총회시의 주제로는 석유산업의 상·하류 전부문에 관하여 폭넓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석유금융, 석유경제, 경영 및

〈표-2〉 역대 총회 개최현황

차수	개최년도	개최지	차수	개최년도	개최지
제1차	1933	영국런던	제8차	1971	소련 모스크바
제2차	1937	프랑스 파리	제9차	1975	일본 동경
제3차	1951	네덜란드 헤이그	제10차	1979	루마니아
제4차	1955	이탈리아 로마			부카레스트
제5차	1959	미국 뉴욕	제11차	1983	영국 런던
제6차	1963	독일 프랑크푸르트	제12차	1987	미국 휴스턴
제7차	1967	멕시코 멕시코시티	제13차	199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14차	1994	노르웨이 스타방거

〈표-3〉 제14차 총회 의제

주 제																																													
전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석유·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노르웨이 수상) • 미국의 석유·가스산업(미국 Conoco사 회장) •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러시아 국영석유회사 회장) • 석유수출국가 현황(OPEC 사무총장) • 국제 에너지 협력(IEA, WEC, WEP 담당임원) • 석유산업의 관계변화(프랑스 Total 사 회장) • 석유산업의 재원조달(City Bank 부회장) • 자동차산업(독일 벤츠사 회장) • 특별강연(R/D Shell사 회장) 																																												
분과 위원회	<table border="1"> <tr> <td>제 1분과</td> <td>탐사전략</td> <td>제12분과</td> <td>초중질유 및 비투벤 개발</td> </tr> <tr> <td>제 2분과</td> <td>지역별 탐사전략</td> <td>제13분과</td> <td>천연가스 처리</td> </tr> <tr> <td>제 3분과</td> <td>러시아 석유산업현황</td> <td>제14분과</td> <td>천연가스 사용</td> </tr> <tr> <td>제 4분과</td> <td>신시추기술</td> <td>제15분과</td> <td>매장량</td> </tr> <tr> <td>제 5분과</td> <td>E&P 통합을 통한 회사 증진</td> <td>제16분과</td> <td>수급상황</td> </tr> <tr> <td>제 6분과</td> <td>한계 해양유전 개발 기술</td> <td>제17분과</td> <td>환경</td> </tr> <tr> <td>제 7분과</td> <td>중유회 회수증진</td> <td>제18분과</td> <td>안전</td> </tr> <tr> <td>제 8분과</td> <td>신탐사·평가기법</td> <td>제19분과</td> <td>자금조달, 세금, 위험 평가</td> </tr> <tr> <td>제 9분과</td> <td>환경과 경제산업</td> <td>제20분과</td> <td>태평양지역의 개발</td> </tr> <tr> <td>제10분과</td> <td>신생연료와 운활유</td> <td>제21분과</td> <td>연구개발</td> </tr> <tr> <td>제11분과</td> <td>석유화학</td> <td>제22분과</td> <td>수송</td> </tr> </table>	제 1분과	탐사전략	제12분과	초중질유 및 비투벤 개발	제 2분과	지역별 탐사전략	제13분과	천연가스 처리	제 3분과	러시아 석유산업현황	제14분과	천연가스 사용	제 4분과	신시추기술	제15분과	매장량	제 5분과	E&P 통합을 통한 회사 증진	제16분과	수급상황	제 6분과	한계 해양유전 개발 기술	제17분과	환경	제 7분과	중유회 회수증진	제18분과	안전	제 8분과	신탐사·평가기법	제19분과	자금조달, 세금, 위험 평가	제 9분과	환경과 경제산업	제20분과	태평양지역의 개발	제10분과	신생연료와 운활유	제21분과	연구개발	제11분과	석유화학	제22분과	수송
제 1분과	탐사전략	제12분과	초중질유 및 비투벤 개발																																										
제 2분과	지역별 탐사전략	제13분과	천연가스 처리																																										
제 3분과	러시아 석유산업현황	제14분과	천연가스 사용																																										
제 4분과	신시추기술	제15분과	매장량																																										
제 5분과	E&P 통합을 통한 회사 증진	제16분과	수급상황																																										
제 6분과	한계 해양유전 개발 기술	제17분과	환경																																										
제 7분과	중유회 회수증진	제18분과	안전																																										
제 8분과	신탐사·평가기법	제19분과	자금조달, 세금, 위험 평가																																										
제 9분과	환경과 경제산업	제20분과	태평양지역의 개발																																										
제10분과	신생연료와 운활유	제21분과	연구개발																																										
제11분과	석유화학	제22분과	수송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제15차 총회는 오는 '97년 10월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세계석유회의 가입시 의무와 혜택

세계석유회의에 가입한 각 회원국이 세계석유회의 본부에 납부하여야 할 연회비는 각국의 석유생산량 GNP등의 기준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차등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별 규모에 따라 UK £1,380 - 11,990(한화 약 170 - 1,480만원)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반면, 회원국이 받게 되는 혜택으로는 ①국별 위원회와 본부, 각 회원국, 각 국의 회원사등과의 상호 정

보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석유산업 전반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② 세계석유회의가 운영하는 총회, 상임이사회, 집행이사회 및 기타 각종 위원회 등에서의 참여와 유치자격을 확보하고 ③ 과학위원회, 개발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연구팀에 자국 후보의 추천 및 의제 상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④ 세계석유회의가 발간하는 각종 정보자료 및 보고서를 통해 국제석유산업 정보의 신속 입수 및 파악이 가능하며 ⑤ 세계석유회의 주최 총회 참가비 및 각종 간행물 구입비의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4. 한국위원회 설립 추진배경 및 경위

세계석유회의 제14차 총회가 노르웨이에서 94년 5월 개최됨에 따라 공사 런던지사를 동 회의에 참석시켜 동회의 결과 및 세계석유회의 가입절차 등을 조사·보고케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95년 2월 동 기구에서의 가입과 이를 위한 한국위원회의 설치방안을 검토, 정부에 보고하였다.

동년 3-5월에는 한국위원회 설립추진에 앞서 국내 석유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정유사, 석유개발회사, 석유화학회사, 석유류 유통회사 등 총 3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호응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동 기구에서의 가입에 대해 동의의 표해 음에 따라 한국위원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6월 13일에는 국내정유업계 관계 임원을 초청하여 제1차 국내석유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렸으며, 기실시 호응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석유회의 한국위원회 설립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동년 11월 21일 확정하고 정부에 보고하였다.

동 계획에 의거 한국위원회 설립관련 업무를 동일 사단법인 해외석유개발협회에 이관하고 동년 12월 28

일에는 동 협회와 공동으로 정유사, 석유개발회사 등의 관련인원을 초청하여 제2차 국내석유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위원회 설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금년 2월 6일에는 한국 위원회 설립준비모임을 개최하고 공사를 비롯한 정유사, 석유개발회사, 석유화학회사,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의 담당임원 24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3월 5일에는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정관 각 회원사별 설립분담금, '96사업 및 예산 계획 등 주요사안을 협의, 확정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3월 26일 한국무역전시관(KOEX)회의실에서 통상산업부의 신동오 자원정책국장을 비롯한 국내석유업계 관련 인사를 모시고 한국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대망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5. 한국위원회 설립형태 및 운영

세계석유회의에의 가입을 위하여는 동 기구의 헌장 제3조에 의거 특정 국가의 석유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국별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고, 또한 동 위원회는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자국의 석유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기관의 후원과 상·하류 전문가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석유회의의 개발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발간한 신규 가입 희망 회원국을 위한 안내 자료에 의하면 각국의 관련 법규가 매우 다양함에 따라 국내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립, 운영하면 충분하다.

이에 따라 한국위원회도 국내석유업계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설립코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석유업계 호응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각도로 설립방안을 모색하였는 바, 동 호응도 조사결과 국내석

유업계의 경우 세계석유회의에의 가입에는 적극 찬등 하나 이미 유사 단체 등에 중복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회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추진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국내석유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위원회는 설립형태를 비법인사단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해외석유개발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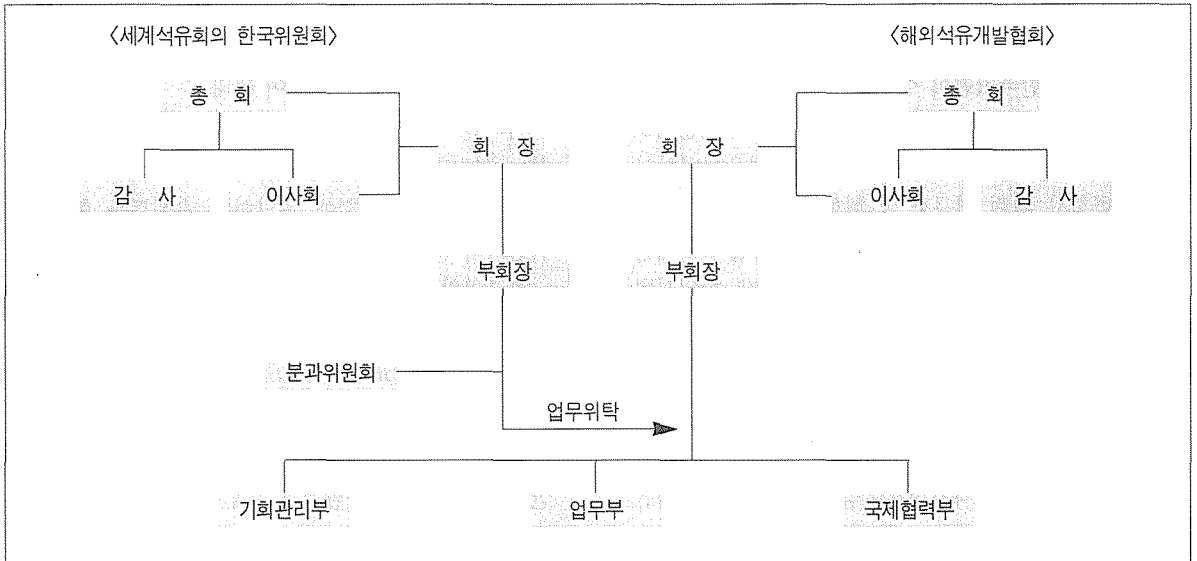
한국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명칭은 『세계석유회의 한국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orld Petroleum Congresses)』로 하고 『세계석유회의 가입 및 교류·협력을 통한 석유·가스산업 및 연관산업의 건전한 공동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의 기여』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를 22명 이내, 감사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초대회장으로는 위원회의 후원사인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장성정 사장이 선임되었고 부회장으로는 조규형(주)유공 사장 등 3명이 감사로는 선우 현범 대림엔지니어링(주) 사장 등 2명이, 이사로는 홍찬기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선임되었다. 이중 업무수탁기관인 해외석유개발협회 윤석구 부회장이 상근부회장으로서 관련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설립됨에 따라 별도의 자체 조직을 가지지 않고 해외석유개발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자간에 별도로 업무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여 위수탁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관련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회비수납 및 회계처리를 위해 해외석유개발협회와 별도로 국제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 사업자 고유번호를 취득하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업무위수탁약정에 의거 매월 정산지급토록 하였다.

위원회의 회원으로는 석유·가스 및 연관산업 관련

〈표-4〉 세계석유회의 한국위원회 기구표



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및 개인이면 누구나가 될 수 있으며, 국내 석유업계 전반의 폭넓은 참여를 위하여 회비는 회원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의 회원으로는 한국석유개발공사, 정유5사, 석유개발회사, 석유화학회사, 해운사, LPG수입사, 중공업, 관련 협회 및 연구소 등 기관회원 32개 기관과 대학교수, 석유전문가 등 개인회원 22명이 가입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내석유업계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회원사의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국내석유업계의 보다 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이 요구된다.

한국석유개발공사는 후원사로서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적정 후원금을 지원하고 또한 세계 석유회의 총회, 집행이사회, 상임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의 파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안에 대하여 각 회원사를 대신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해외석유개발협회의 위원회 운영능력을 보완하고자 한다.

6. 맺는말

2000년대 세계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정보화 추세에 대비하여 국내석유산업의 세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제 석유산업의 흐름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입을 추진중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물론, 세계경제환경은 국가의 규제와 통제보다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유주의가 대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중심의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볼때 세계석유회의에의 가입은 국내석유업계의 세계화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그 효용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석유업계 전반의 전폭적인 동참과 지원을 기대한다. ♣